

우간다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 광주인권상 선정

5·18기념재단,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서 시상식 트라우마 치료·지역공동체 연대 등 인권 실현 평가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우간다의 인권활동가 실비아 아칸(Sylvia Acan)이 선정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4일 오월기억저장소 회의실에서 ‘2026 광주인권상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비아 아칸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실비아 아칸은 오랜 기간 우간다에서

본성과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활동가로, 지역사회 기반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1987년부터 이어온 ‘신의 저항군(L.R.A)’과 우간다 정부군 사이의 무장 분쟁 속에서 13살 당시 ‘신의 저항군’에 납치돼 8년간 억류당했던 분쟁의



피해 당사자이지만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인권 활동에 뛰어들었다. 아칸은 지난 2000년부터 노르웨이 난민위원회 소속으로 우간다 북부 지역에 위치한 120개 이상의 싹탄민 캠프에서 구호활동을 하며 인권활동가로서 첫발을 내딛었고, 2011년 생존자 중심의 단체인 ‘골든 우먼 비전 인 우간다’를 설립했다. 특히 생존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트라우마 치유와 심리 치료, 재방, 재고, 비누 제작, 재봉 기술 등 직업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강제퇴거 위기의 미망인과 싹탄민 여성을 대상으로 언론 대응과 법적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문화계 지도자들과 협력해 피해자 사회 복귀와 낙인 완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 왔다.

아칸은 우간다 내의 문제를 넘어 ‘전쟁 성폭력 피해 생존자 국제 네트워크’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전 세계 분쟁 피해 여성들을 위한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노예 범죄 정책 마련을 위한 국제 회의에 참여해, 납치·구금·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광주인권상 심사위원회는 피해 생존자들의 치유와 사회 복귀를 돕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이끌어내고, 인권

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실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2026 광주인권상 시상식은 오는 1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모두의 인권’을 주제로 개최된다. 유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실비아 아칸의 활동은 개인의 고통을 인권운동으로 전환하며, 그 힘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며 “광주의 정신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가수 안성훈 팬클럽, 여수시에 500만원 고향사랑기부



‘섬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된 가수 안성훈의 팬클럽 ‘후니에니’가 최근 여수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섬 방문의 해’ 홍보대사 위촉 맞아 팬클럽도 나눔 동참

가수 안성훈의 팬클럽 ‘후니에니’가 최근 여수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순신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가수 안성훈은 ‘섬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됐으며, 팬클럽 ‘후니에니’는 이를 기념해 여수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가수 안성훈은 남도를 찾아 섬 주민들과 노래와 답소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보낸 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안성훈은 “‘섬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에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팬클럽 ‘후니에니’의 기부를 통해 저와 팬들의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부에 동참해주신 가수 안성훈님과 팬클럽 ‘후니에니’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

부금은 지역 발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후니에니’는 그동안 소외 계층 지원, 산불피해복구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함께 실천하는 성숙한 팬 문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주소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취약계층 보호 등 주민 복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호반장학재단이 최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 3000만원을 보성군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사진제공=보성군청

호반장학재단, 2년 연속 지역 인재 육성 앞장

보성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3000만원 기탁

호반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기금 3000만원을 보성군장학재단에 기탁했다. 호반장학재단 관계자는 “보성의 미래 자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호반장학재단은 지난 1999년 김상열 이사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성군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하며 2년 연속 지역 인재 육성을 이어가고 있다. 호반장학재단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단위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 장학금’을 통해 보성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 등 장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7년간 1만여명의 학생에게 200여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호반장학재단 관계자는 “보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호반장학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반장학재단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단위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 장학금’을 통해 보성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멘토링·컨설팅·네트워킹 등 장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이공계 중심 장학제도 개편을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K-과학인재 아카데미’ 대학생 프로젝트 경연과 고등학생 캠프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 선발과 교육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리

한편 보성군장학재단은 총 210억원(2026년 4월 23일 기준)의 장학기금을 조성하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교육친화 도시 보성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보성=임태현 기자 limth66@gwangnam.co.kr



㈜광주신세계가 지역 미술 꿈나무들을 발굴하고자 후원한 ‘2026 광주학생 미술대전’이 지역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광주신세계, ‘2026 학생 미술대전’ 성료

2024년부터 후원...지역 미술 꿈나무 발굴

㈜광주신세계가 지역 미술 꿈나무들을 발굴하고자 후원한 ‘2026 광주학생 미술대전’이 지역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5일 광주신세계는 최근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광주학생 미술대전 시상식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광주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공모 받았다. 지난 2024년 ‘꿈’, 2025년 ‘여행’을 주제로 했던 광주학생 미술대전은 올해 ‘평화’를 주제로 1차 공모를 받았다. 이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사생대회를 진행해서 공정성을 높였다. 최종 수상자 60점은 광주시립미술관

(5월 2~10일)과 광주신세계갤러리(5월 13~19일)에서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이등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지역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 덕분에 올해 대회가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신세계는 현직법인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은 광주신세계는 지역 미술인재 육성을 위해 미술대전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지난 2024년 시작된 광주학생 미술대전은 지역 내 미술 꿈나무들에게 미술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윤우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따뜻한 영양돌봄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 본죽 왔어요” 돌봄사업 호응

동신대,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증진·정서적 안정 지원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따뜻한 영양돌봄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동신대 산학협력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양지원 사업 ‘어르신, 본죽 왔어요!’ 사업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달 8일 시작해 오는 12월 16일까지 9개월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에 놓인 지역 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 개선은 물론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캠페인은 분야이예프의 대표 브랜드 ‘본죽’,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고령 장애인과 돌봄 취약 노인 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주 1회 생활지원사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죽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조준 동신대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장은 “이번 죽 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의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촘촘한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는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정서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구례군 ‘생명나눔 헌혈’ 혈액 수급 안정화 기여

구례군은 최근 군의회 광장에서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생명나눔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헌혈 참여율이 낮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혈액 수급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광주·전남혈액원의 이동헌혈

버스를 배치해 참여 편의를 높였다. 헌혈 참여자에게는 헌혈증서와 함께 혈액형·간 기능(ALT)·총 단백질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헌혈 기념품 증정, 봉사 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하반기에도 2회

의 헌혈행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기적인 헌혈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혈액 수급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남은 헌혈 행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안정적인 혈액 공급 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노씨삼릉단 대종회는 최근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노씨삼릉단’에서 삼릉단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제 행사를 가졌다.

노씨삼릉단 대종회, 설단 100주년 기념 행사

국내외 종친 700여명 참석

노씨삼릉단(盧氏三陵壇) 대종회(회장 노대기)는 최근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노씨삼릉단(盧氏三陵壇)’에서 삼릉단 설립(設壇)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제(大祭)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노씨 종친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노씨 종친 대표단 40명이 한국도 참석했다. 삼릉단은 일제 강점기인 1926년 전국 노씨 종친들이 일본식 성명 강요 등 일제의 폭정에 항거하고 조상을 숭모하기 위해 뜻을 모아 노씨 시조인 노수(盧穗)와 9명의 자제를 모신 단소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